

## 새로 개발한 한방 피부소양증 치료제에 관한 연구

이준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 A study on newly developed herbal ointment for itching

Joon-Moo Lee

**Objectives** :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external treatment for itching. A clinical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a newly developed herbal ointment.

**Methods** : A newly developed herbal ointment made from *Rumex japonicus* Houtt, *Prunus persica*(Linne) Batsch, *Sesamum indicum* L., and *Sus scrofa domestica* Brisson., was given to 49 participants with itching to administer for approximately a mon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reatment experiences, symptom change, and other comments were self-reported on a pre-defined questionnaire.

**Results** : Most frequent complaint was itching (24.01%), followed by sensitivity (19.60%), dryness(18.62%), frustration (13.72%) and insomnia (12.25%). Of 41 participants who had been given treatment for itching, around a half of them (n=21) have been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but all of them tried Western Medicine as well. The effect of the ointment was evaluated as excellent or good/fair (67.32%). Continuity was reported as excellent or good/fair (51.0%) and fragrance (73.44%) and color (75.48%) was reported as excellent or good/fair. Convenience, however, was assessed as good/fair (67.32%) and as inconvenient (22.4%).

**Conclusion** : The newly developed herbal ointment seems promising for relieving itching and further research to standardize and develop this kind of ointment is warranted.

**Key word** : herbal ointment, *Rumex japonicus* Houtt,itching

### 1. 서 론

한의학의 특성상 같은 질환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물의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교신저자 : 이준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Tel, 033-730-06662, E-mail: jmlee@sangji.ac.kr)  
• 접수 2008/11/03 • 수정 2008/11/28 • 채택 2008/12/09

虛證과 實證의 치료법이 다르고 같은 虛證이라도 陰虛證과 陽虛證이 다르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 외부와 접촉되어 있어 체온조절, 감각, 배설 및 분비작용 등의 작용을 하고 있다<sup>1)</sup>. 內經에 肺主皮毛라 하여 피모는 폐에 속하며 肺之合이 皮이고 그榮은 毛가 된다고 하였고 邪在肺하면 病皮膚痛한다

고 하였다. 또한 皮膚를 腠理라고도 하니 津液이 滲泄하는 곳이 腠이고, 文理의 縫合之中이 理이라 하고 腠理를 玄府라고도 하니 玄府는 汗孔이다<sup>2)</sup>.

문명세계가 발달하면서 환경변화가 크게 변하였으며 식생활도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그에 따르는 부작용 역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많았고 그 중 한 분야가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피부 소양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생율이 높은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주증상으로 홍반, 부종, 삼출물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sup>3)</sup>.

한의학에서 소양증은 주로 風癢에 범주에 속하나 奶癬, 胎癬, 濕疹, 濕瘡<sup>4)</sup>, 胎斂瘡<sup>5)</sup>, 浸淫瘡<sup>6)</sup> 등도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피부 소양증환자를 외용요법으로 치험한 연구는 한 등<sup>7)</sup>의 임상적 연구가 있고, 외치요법으로 치험한 예는 심 등<sup>8)</sup>의 만성성인병 아토피피부염, 허 등<sup>9)</sup>, 아토피피부염, 김 등<sup>10)</sup>의 한방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그 외 처방에 대한 방제학적 고찰<sup>11)</sup>과 문헌고찰<sup>12)</sup> 등의 연구가 있으나 외용제만으로 치료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용제만을 사용하여 치료 목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羊蹄根 桃枝 胡麻油 野豬脂를 혼합하여 외용약으로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羊蹄根(참소리쟁이, *Rumex japonicus* Houtt.)은 마디풀과의 식물로 苦寒無毒하고 頭禿疥癢, 除熱, 女子陰蝕 浸淫瘡, 解毒殺蟲<sup>13,14)</sup>에 사용하고 桃枝(복숭아 나무, *Prunus persica* (Linne) Batsch)는 복숭아나무의 가는 가지로 苦平無毒하고 清熱利濕, 解毒, 殺諸瘡蟲<sup>13,15)</sup>을 치료하며 胡麻油(*Sesamum indicum* L.)는 검은 참깨기름으로 甘微寒無毒하며 天行病 頭面遊風 一切惡瘡疥癬, 殺蟲<sup>13,15,16,17)</sup>을 치료하며 野豬脂(*Sus scrofa domestica* Brisson.)는 甘平無毒하며 除風腫毒, 祛風解毒하여 疥癬 皮膚破裂<sup>13,15,16,18)</sup>하는 까닭에 4종의 약재를 물약으로 제조하였으며 사종의 약물이 공히 해독 살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허실을 구별않고 사용

하였으며 이를 아토피성(소양증)피부염에 사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임상연구 기간은 2008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하계의료 봉사기간 중 피부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7-8월에 주위의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총 49명을 취합하여 하였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약물을 바른 후에 전화를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외 주위에 소양증환자는 20-30일 정도 약물을 도포 후 설문지를 주고서 설문지를 받았다.

### 2. 방법

#### 1) 제품

羊蹄根, 桃枝, 胡麻油, 野豬脂

#### 2) 제조

羊蹄根은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많은량을 구입한 후 1,000cc의 양이 될 때까지 즙을 내었고 桃枝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복숭아밭에서 봄철에 가지 절단 시 구입하였는데 주로 가느다란 가지를 선별하여 구입하여 물에 담근 후에 껍질을 벗기어 그 껍질을 1,000g 사용하였다. 胡麻油는 기름집에서 구입하여 100g을 넣었으며 野豬脂는 원주시 치악산 야생 멧돼지 사육장에서 구입하여 20g을 넣었다. 먼저 羊蹄根과 桃枝를 같은 양으로 40분 전탕한 후에 胡麻油와 野豬脂를 넣어 약한 불에 다시 10분 전탕 후 용기에 넣어 사용하였다. 약물 塗布는 사용 시 용기를 흔들어 수시로 바르게 하였다.

### 3) 방법

별첨 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현재의 피부의 상태, 한의치료, 양방치료, 양한방동시치료와 약물 도포 후 상태를 질문하였다. 통계처리는 단순빈도비교를 하였다.

## Ⅲ. 결 과

###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49명의 환자 중 여자가 32명(65.60%), 남자가 17명(34.85%)으로 여자가 2배 정도 높은 비율(1:1.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19세가 13명(26.65%)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10명(20.25%), 20-29세가 8명(16.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아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Sex and Age

Age	Male	Female	Total(%)
0-9	4	6	20,50
10-19	5	8	26,65
20-29	3	5	16,40
30-39	1	4	10,25
40-49	2	2	8,20
50-59	2	3	10,25
60-69	0	3	6,15
over 70	0	1	2,05
Total	17	32	49(100,45)

Table 2. Distribution of Symptoms

Symptom	Male(%)	Female(%)	Total(%)
Dry	10(17,50)	28(19,04)	38(18,62)
Itchy	17(29,75)	32(21,76)	49(24,01)
Oozing	3(5,25)	5(3,40)	8(3,92)
Bleeding	0(0,00)	1(0,68)	1(0,49)
Sensitive	15(26,25)	25(17,00)	40(19,60)
Frustrating	2(3,50)	26(17,68)	28(13,72)
Moisture relieves itching	3(5,25)	12(8,16)	15(7,35)
Insomnia	7(12,25)	18(12,24)	25(12,25)
Total	57(99,75)	147(99,96)	204(99,96)

### 2. 증상별 분포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49(24.01%)명 전체가 호소를 하였으며 그 다음이 예민하다가 40(19.60%)명 이고 건조하다가 38(18.62%)명, 좌절감을 느낀다, 수면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소양증 17(29.75%)명, 예민하다가 15(26.25%)명, 건조하다가 10(17.5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소양증이 32(2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건조하다가 28(19.04%) 좌절감을 느낀다가 26(17.68%)명 예민하다가 25(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의 경우 소양증 다음이 예민하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소양증 다음으로 건조하다 좌절감을 느낀다 예민하디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여진다(Table 2).

### 3. 증상별 성별 연령 분포

남녀 공히 전체가 소양증을 호소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예민하다 건조하다 수면장애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건조하다 좌절감을 느낀다 예민하다 수면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ex and Age Distribution of Symptoms

	Dry		Oozing		Bleeding		Sensitive		Frustrating		Moisture relieves itching		Insomnia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0-9	3	4	2	2	0	1	2	2	0	1	0	2	2	5
10-19	5	5	1	3	0	0	5	8	0	8	2	3	4	7
20-29	2	5	0	0	0	0	3	5	2	5	0	2	1	3
30-39	0	3	0	0	0	0	1	4	0	4	0	2	0	1
40-49	2	1	0	0	0	0	2	2	0	3	1	1	0	0
50-59	2	2	0	0	0	0	2	2	0	3	0	1	0	1
60-69	0	2	0	0	0	0	0	2	0	3	0	0	0	1
Over 7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Total	14	23	3	5	0	1	15	25	2	26	3	12	7	18

Table 4. Experienced Medical Treatment

	Western Medicine		Korean Medicine		Both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0-9	4	6	2	4	3	3
10-19	4	7	2	4	3	5
20-29	3	4	1	2	3	4
30-39	0	3	1	1	0	3
40-49	2	2	1	0	1	1
50-59	2	2	0	1	1	1
60-69	0	2	0	1	0	1
Over 70	0	0	0	1	0	0
Total	15	26	7	14	11	18

Table 5. Effect of Treatment

	Effect			Continuity			Fragrance			Color			Convenience							
	Excellent	Good/Fair	Poor	None	Excellent	Good/Fair	Poor	None	Excellent	Good/Fair	Poor	None	Excellent	Good/Fair	Poor	None				
0-9	2	5	2	1	0	3	4	3	1	8	1	0	0	8	1	1	0	7	0	3
10-19	3	5	3	2	1	5	3	4	1	12	0	0	1	10	2	0	0	8	4	1
20-29	1	3	3	1	2	3	2	1	1	4	2	1	2	5	0	1	0	4	3	1
30-39	1	2	1	1	1	2	2	0	0	3	2	0	0	3	2	0	0	3	2	0
40-49	2	2	0	0	1	1	2	0	0	3	0	1	0	4	0	0	0	4	0	0
50-59	2	3	0	0	2	2	1	0	0	3	0	2	0	4	1	0	0	5	0	0
60-69	0	1	1	1	0	2	0	1	0	2	1	0	0	2	1	0	0	1	2	0
Over 70	0	1	0	0	0	0	1	0	0	1	0	0	0	1	0	0	0	1	0	0
Total	11	22	10	6	7	18	15	9	3	36	6	4	3	37	7	2	0	33	11	5

#### 4. 양 한방 치료의 경험유무

남녀 49명의 환자 중 양방치료를 경험한 사람은 41명이고 한방치료를 한사람은 21명이며 양한방 치료를 한사람은 29명으로 나타났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와 양한방치료를 한 사람의 비율은 1:0.5:0.7로 양방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한방치료를 한 사람이 가장 적었다(Table 4).

#### 5. 약물도포 후 치료 결과

4종의 한약약물을 도포한 결과 약효는 좋다가 22.44%, 보통이다가 44.88%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고 지속성은 좋다가 보통이 25명(51.0%) 나쁘다와 무응답이 24명(48.96%)으로 반반으로 나타났으며 향은 보통이 36명(73.44%), 색상도 보통이 37명(75.48%)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고, 편리함은 아주 좋다는 없었으나 보통이 33명(67.32%)로 많았고 불편함(22.4%)과 무응답(10.2%)이 각각 11명, 5명으로 응답하였다(Table 5).

### IV. 고 찰

옛 속담에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 하여 신체의 장기를 감싸주는 막과 같은 것으로 雜病源流犀燭<sup>19)</sup>에 皮也者所以包涵肌肉 防衛筋骨者也라 하였으며 피부는 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피부는 일반적으로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있고 그 밑에 피하지방층으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汗腺, 피지샘, 손발톱이 피부조직에 포함된다. 또 자각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이 대표적이며 통증 및 감각저하 등이 있고 원발성 징후로는 반집, 구진, 결절, 낭, 종양, 팽진, 수포, 농포 등을 들 수 있고 속발성징후로는 비늘(鱗屑), 상처, 열창(균열), 痂皮, 糜爛, 궤양, 흉터, 위축 등을 들 수 있다<sup>20)</sup>.

한의학에서는 肺主皮毛라하여 肺의 습은 皮요 찡은 毛라하여 肺가 皮毛를 주관한다고 인식하였다. 邪在肺하면 病皮膚痛한다 하였고 또한 皮膚를 腠理라 하여 津液이 滲泄하는 곳이 腠이고, 文理는 縫合之中이 理라 하여 腠理를 玄府라고도 하니 玄府는 汗孔이라 하였다<sup>2)</sup>.

피부소양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생율이 높은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주증상으로 홍반, 부종, 삼출물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sup>3)</sup>. 한의학에서 소양증은 奶癬, 胎癬, 濕疹, 濕瘡<sup>4)</sup>, 胎敏瘡<sup>5)</sup>, 浸淫瘡<sup>6)</sup> 등의 범주에 속한다.

피부 소양증환자를 외용요법으로 치험한 연구는 한 등<sup>7)</sup>의 연구가 있고 외치요법으로 치험한 예는 심 등<sup>8)</sup> 허 등<sup>9)</sup> 한 등<sup>10)</sup>의 연구가 있었으며, 그 외 방제학적 고찰<sup>19)</sup>과 문헌고찰<sup>20)</sup>등이 있고 그 외에 升葛湯을 사용한 약물요법<sup>21)</sup>, 상한론 처방을 이용한 치험례<sup>22)</sup>, 지루성 피부염<sup>23)</sup>, 방풍통성산을 이용한 동물실험<sup>24)</sup>, 영유아에 대한 식이용법 등<sup>25)</sup>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羊蹄根(소리쟁이의 根)은 마디풀과로 性味는 苦平無毒하고 歸經은 心, 肝, 大腸經으로 頭禿疥瘡, 除熱, 女子陰蝕, 浸淫瘡<sup>13,14)</sup>을 치료하고 桃枝는 性味는 苦辛平하고 歸經은 肺,脾,腎經하고 복숭아 나무 가지로 동쪽을 향해 있는 것을 상품으로 사용하였으며 疥癬, 濕疹, 疫癘, 殺諸瘡蟲, 小兒白禿, 解蟲毒 殺諸瘡蟲<sup>13,15)</sup>을 치료하며 胡麻油는 검은 참깨 기름으로 甘微寒無毒하며 歸經은 肺,脾,肝,腎하며 潤燥滑腸, 滋養肝腎으로 癰腫 天行病 頭面遊風 一切惡瘡疥癬<sup>13,15,16,17)</sup>을 치료하고 野豬脂는 음력 12월에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품으로 甘寒(平)無毒하며 歸經은 肺 大腸經으로 補虛養顏 除風腫毒 疥癬 皮膚皸裂 祛風解毒 惡瘡痔疾<sup>13,15,16,18)</sup> 등에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49명의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여자가 32명(65.60%), 남자가 17명(34.85%)으로 여자가 2배 정도 높은 비율(1:1.9)로 나타났다

며, 연령별로는 10-19세가 13명(26.65%)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10명(20.25%), 20-29세가 8명(16.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분포를 살펴봐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이하에서 23명(46.90%)으로 반 정도에 소양증환자가 많은 것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생활과 식생활의 변천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49(24.01%)명 전체가 호소를 하였으며 그 다음이 예민하다가 40(19.60%)명이고 건조하다가 38(18.62%)명, 좌절감을 느낀다, 수면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소양증 17(29.75%)명, 예민하다가 15(26.25%)명, 건조하다가 10(17.5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소양증이 32(2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건조하다가 28(19.04%) 좌절감을 느낀다가 26(17.68%)명 예민하다가 25(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의 경우 소양증 다음이 예민하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소양증 다음으로 건조하다 좌절감을 느낀다 예민하디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본 설문 조사에서 49명 전체가 소양증을 느낀다고 답한 것이고, 여성의 경우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답변 한 것은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 49명의 환자 중 양방치료를 경험한 사람은 41명이고 한방치료를 한사람은 21명이며 양한방치료를 한사람은 29명으로 나타났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와 양한방치료를 한사람의 비율은 1:0.5:0.7로 양방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한방치료를 한 사람이 가장 적었다. 이는 아직도 피부질환에 있어 한의학으로 피부질환이 치료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4종의 한약약물을 도포한 결과 약효는 좋다가 22.44%, 보통이다가 44.88%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고 지속성은 좋다가 7명(14.28%)이고 나쁘다와

무응답이 24명(48.96%)으로 반반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향은 보통이 36명(73.44%) 나쁘다와 무응답이 10명(20.60%)으로 1/5이 좋은 많은 지적을 받아 향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도 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색상은 보통이 37명(75.48%)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고, 편리함은 아주 좋다는 없었으나 보통이 33명(67.32%)로 많았고 불편함과 무응답이 16명(32.64%)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는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2008년 7월 24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학생 하계의료 봉사기간과 그 외 주위에 피부병을 호소하는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羊蹄根 桃枝 胡麻油 野豬脂를 외용약으로 제조하여 도포하게 한 후 환자의 증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환자 중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2배정도 많았다.
2. 연령별 분포는 10대, 10대 이하, 20대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3. 증상별로는 소양증은 전체가 호소하였고 피부가 예민하다 건조하디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으로는 좌절감을 느낀다와 수면장애를 느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양한방치료는 양방치료가 많았고 양한방치료와 한방 치료순으로 나타났다.
5. 편리함에 있어 아주 좋다가 없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으로 보아 젊은 층에 피부염환자가 많고 특히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에는 피부병하면 양방부터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한방으로 치료가 더욱 잘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06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參考文獻

1. 박경아 외. 조직학. 서울:고려의학. 1999:405-11.
2. 홍원식 편역.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민서출판사. 1984:293-305.
3.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1066-70.
4. 顧伯華. 실용중의외과학. 상해:상해과학출판사. 1994:461.
5. 吳廉. 의종금감. 서울:대성문화사. 1991:459-60.
6. 宋書功 編著. 金櫃要略廣州教典.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94:221-5.
7. 한재경, 김윤희. 외용요법을 병행한토피코피부염 환자 20예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소아과학회지. 2001;15(1):15-21.
8. 심성용, 김성범, 김경준. 만성성인병 아토피피부염 외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79-90.
9. 허인회, 홍성민, 엄유식, 변학성, 심성용, 김경순. 외치요법을 위주로 한 아토피피부염 환자 증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 201-8.
10. 김창훈, 김정태, 정현아, 노석선.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한방 추출물이 포함된 외용제품에 대한 임상효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87-98.

11. 이상현, 윤용갑. 아토피 피부염 치료 처방에 대한 방제학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103-17.
12. 신상호, 김미보, 변석미, 이호섭, 박선규, 고우신, 윤화정. 아토피피부염의 외치법에 대한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 80-93.
13. 이시진. 본초강목. 서울:고문사. 1987:783-784, 830-831, 999-1000, 1552.
14. 박경외. 국역향약집성방(하). 서울:영림사. 1989:1847, 2042.
15. 黃宮 繡纂. 本草求真. 台北:廣業書局. 1970:38, 40, 242-3.
16. 楊倉良 외. 동물본초. 북경:중의고적출판사. 2001:675-6.
17. 田代華. 실용중약사전. 북경:인민위생출판사. 2002:1548.
18. 鄧明魯. 동물약자원. 북경:중국중의약출판사. 2007:320.
19.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북경:중국중의약출판사. 1997:398.
20. 서울의대피부과학교실. 피부과학. 서울:고려의학. 2006:11.
21. 신상호, 김자혜, 김미현, 윤화정, 고우신 외. 승갈탕을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 20(2):199-212.
22. 홍성민, 허인회,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상한론 처방을 사용한 아토피성 피부염환자 1례 보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 230-9.
23. 차재훈, 김윤범, 남혜정, 김희정, 박외숙, 김규석. 지루성피부염의 최신 지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118-132.
24. 손정민, 홍승욱. 방풍통성산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모델의 피부 손상에 미치는 영

- 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1): 99-114.
25. 허인회, 서민수, 심성용, 김경준. 영유아 아토피 피부염의 식이요법에 대한 지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71-9.

- 양방 피부과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치료한 적이 있으면 며칠간 하였습니다가? ( 일)  
 한방 치료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치료한 적이 있으면 며칠간 하였습니다가? ( 일)  
 양한방 치료를 동시에 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치료한 적이 있으면 며칠간 하였습니다가? ( 일)

[별첨 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피부소양증(가려움증)용 외용 연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응답자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잠깐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문일 :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설문지를 읽어 보시고 본인에 상태에 맞는 곳에 O표를 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성별 남 여

연령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피부가 건조한 편이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가 가렵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가 가려워 긁으면 진물이 난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가 가려워 긁으면 피가 난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가 예민하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의 소양증으로 좌절감을 느낀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에 물이 묻으면 순간적으로 가렵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피부의 가려움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다, 아니다)

본 약을 사용하고 가려움의 상태는?

전혀 가렵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더 가려워 졌다

본 약을 사용하고 피부가 건조한 상태는?

전혀 가렵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더 가려워 졌다

본 약을 사용하고 진물의 정도는?

전혀 가렵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더 가려워 졌다

본 약을 사용하고 느낀 결과는?

- 약효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약효의 지속성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약효의 향은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약효의 색상은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바를 때에 편리함은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여 대단히 감사합니다.